투데이 칼럼

그때로 돌아간다면

홍 민 기
수필가

2002년도에 개봉한 미국 영화 '타임머신', 사랑하는 약혼녀가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본 주인공은 타임머신을 제작, 과거로 돌아가 약혼녀를 구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해피엔딩.

이처럼 과거로 돌아가 현재의 상황을 바꾸는 소설, 영화, 만화, 드라마는 무수히 많다. 이는 지난 날의 잘못된 생각, 실수, 간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한 후회나 미련, 욕심이 깔려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꿈같은 픽션이지만 이를 성찰해보면, 우리는 지금 이시간에도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다. 가장 큰 몫은 시간이다.

한자 성어 중에 "풍수지탄(風樹之歎)이 있다. 이 뜻은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이다.

왜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가 높아야 효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까? 자식은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노인이 된 우리가 느끼는 점도 '효도'는 그것이 아닌데 말이다.

특히 나이들어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 진정한 삶의 가치가 소유나 지위, 명예, 기타 사람이 추구하려는 욕심과 결코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옆길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정설처럼 여기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위대한 인물은 자격능력 못지않게 오히려 자상하고 유머있고, 따뜻한 인품을 요한다.

'그때로 돌아간다면'과 같은 불가능에 후회나 미련을 싣는 것보다 종종 삶을 성찰하여 놓치는 일, 후회할 일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작이 반이다. 늦었다 생각할 때 바로 하고 또 후회없게 하는 것이다. 여생의 시간은 느낌보다 훨씬 빠르니까!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홍콩 반환 28주년 기념사하는 존 리 행정장관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1일(현지 시간) 홍콩에서 열린 홍콩 반환 28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리 장관은 "안정에서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단결하고, 개혁을 통해 미래를 형성하자"라고 밝혔다.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됐다.

태국 헌법재판소, 패통탄 총리 직무 정지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1일(현지 시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방콕 정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 통화에서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패통탄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여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 설

제7회 전주서각회 회원전

제7회 전주서각회 '나무에 혼을 담아' 회원전이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기스락 1층에서 열렸다. 출품 회원은 20명이다.

'전주서각회' 회원들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소연 임채순(昭然 林采順) 선생을 지도교수로 서각을 배우고 있다.

출품 작품은 강규원 '아침의 향기', 강병찬 '현덕(玄德)', 고해중 '동행(同行)', 김구전 '효(孝)', 김신중 '금란(金蘭)', 김완봉 '청풍고절(淸風高節)', 김홍선 '주상관매도(舟上觀梅圖)', 마정숙 '감사', 변윤석 '매한도(梅寒圖)', 신행근 '추야천봉월(秋夜千峯)', 이윤애 '코카서스의 노래', 이정열 '목(穆)', 임예경 '빛과 소금', 장경덕 '주의 기도', 장건식 '담대하라', 정영태 '율곡 시구(山中)', 조덕이 '근심지영(根深枝榮)', 조진경 '날아 오르자', 함기송 '인향만리', 홍설희 '방하착(放下착)' 등이다.

나무에 글과 그림을 새기는 서각(書刻)은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의 멋스러운 예술이다.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다. 기본 도구만 갖추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서각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반복되는 칼질과 정적인 작업은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완성된 작품을 손에 쥐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글씨를 새기든 그림을 새기든 자신만의 감성과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로움도 서각의 가장 큰 매력이다. 나무판 위에 새겨진 한 글자, 한 획이 인생의 여백을 채우는 특별한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

북한의 3대 모자이크 벽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자이크 벽화가 선대인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벽화보다 주목받는 위치에 설치돼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독자적 위상을 공고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대보다 우월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선중앙TV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현지 지도한 경공업 공장인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소개했다. 공장 앞에 설치된 모자이크 벽화가 등장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벽화가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양옆으로 김일성, 김정일 벽화가 배치됐다.

모자이크 벽화는 대표적인 김씨 일가 우상화 도구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려진 벽화는 2022년 10월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에서 처음 포착된 바 있다. 이후 3대 김씨 벽화는 왼쪽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순으로 설치됐다.

김 위원장의 벽화를 가운데 배치한 것은 그의 업적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강해 보인다.

이를 통해 자신이 권력을 잡은 정당성은 단순히 '선대 계승' 차원이 아닌 '탁월한 업적'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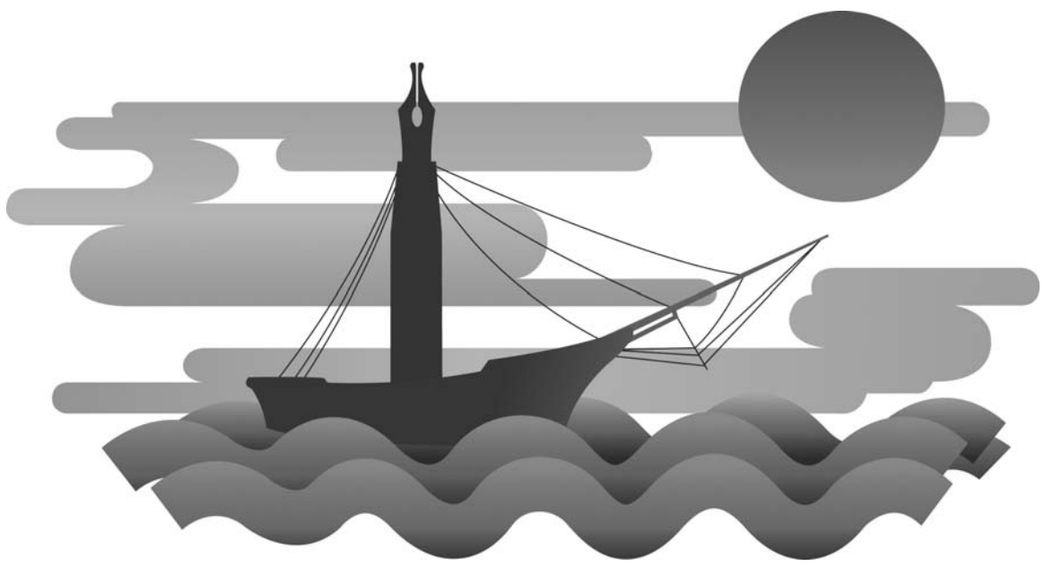
2013년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지나친 선대 우상화를 경계하는 동시에 독자 우상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그는 집권 초엔 새해와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2월 16일) 때 빠짐없이 선대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았으며 태양절 참배는 올해를 포함해 3년째 불참했다. 각종 담화와 관영매체 제호에서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연호' 사용도 중단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